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9 | 1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회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chol.com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파부색이 어떨든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파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령 106 호 2005년 09/10 일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서은희 | 목은이 이강선주, 류지민, 이성봉, 김희정
펴낸날 2005년 9월 5일

2	여는 글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확대되길..	김영옥	
4	보육정책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섬세한 정책...	이윤경	
7	보육활동	안전보육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침해의 딜레마 (2)	서정은
14	평등 7차년 보육기	아이들과 함께한 글씨 쓰기		강영신
22	좋은 그림책소개	가을 이야기		이지영
24	그림책을 읽어주고	선생님! 빗소리 들려요 가요 - 네 살 아이들과 함께		신선주
26		비 오는 날은 산나는 날 - 다섯 살 아이들과 함께		곽영란
28	보육활동재안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리는 자연학교		박부자
36	상업원의 대대적 보육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공터의 기억으로부터(3)	상예원 · 정리	편집부
41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7)	김마나, 고정미	
49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윤선영
54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동그리미
56	보육교사일기	셋별을 품고 사는 우주 이야기		이순
59	육아일기	차츰우들 늦깎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7탄		김수연
62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은 소망으로 피어나... 세쌍둥이 어린이집		류지민
64	중앙활동	고영미회원 여성부장관표창		편집부
67	세상읽기	시골에서 읽은 세상		이선미
69	특별기고	어린이집 '빈고' 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김영영
73	기타소식모음	알림판		
75	소식과 소식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7				
79	편집후기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확대되길..

김영옥 · 후원회원, 강서구

주변에 보육교사를 하는 친구가 두 명이나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아이는 6개월이 되면서부터 옆집 아주머니의 손을 거쳐 말도 배우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야만 했다.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가정보육, 놀이방,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루 거쳤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땅의 엄마들이 다 겪듯이 새로운 보육시설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엉엉 울던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맘이 아프다.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 아닌 조언을 귀따갑게 들으면서 그야말로 견뎌내야만 했다. 사실 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주변에는 놀이방 밖에 없었으니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시설에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도 이사를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다닌 어린이집(국공립)은 시설도 교사도 민간시설들에 비하면 만족스러웠다. 지금도 어린이집 선생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 우리 아들은 이틀에 한 번 어린이집에 놀러가고,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두 번은 아이들을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러 가신다. 어린이집 다닐 때 내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준비물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선생님은 세심하게 배려해주었다. 지금도 고마울 따름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참 좋은 교사다.

올 해로 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아동복지센터가 있어 방과 후교실에 다닌다. 방과후교실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가질 싫어한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런지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여건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교사 대 아동수도 너무 많으니 한 명 한 명 보살피고 관심을 갖게 되질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점차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보육체계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도 말길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니 한 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뭔가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참여할 구조가 전혀 없다.

보육에 관련해서는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다행히 보육 교사회가 있어 회원가입을 했지만, 교사중심의 조직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직도 낯설다. 이제는 보육노조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보육교사회는 부모와 아이, 전문가, 행정가, 교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시민단체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부모도 아이도 뭔가 터놓고 얘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법으로 반영되어 다시 현장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부모도 함께 맛보고 싶기 때문이다.

책상 앞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 야간, 휴일보육정책의 문제

이용경 ·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1. 현장에서

얼마 전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만났다. 경력이 10년이 넘는 이 베테랑 교사의 최근 고민은 아이보육활동이나 부모와의 관계도 아닌 연장보육시행에 있었다. 근무하는 곳이 지역에서 규모도 크고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 온 어린이집이기에 이번에 구청에서 야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입지나 지역수요를 생각해 볼 때 그 결정은 나름대로 타당해보였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가 고민하는 것은 신규로 야간운영을 하게 될 경우 업무배치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시설장이 신규로 운영하는 야간연장보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새로운 교사를 쓰기보다는 기왕에 함께 근무해 온 경력자 중에 야간반 담당을 정하고 싶다는 뜻을 교사들한테 은근히 밝힌 까닭이다. 물론 필요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는 하겠지만 처음부터 야간반을 맡기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야간반의 특성상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연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해 온 믿을 만한 사람을 배치하고 싶은 것은 운영자로서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주간근무로 근무해오고 나름대로의 생활리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간 근무로의 전환배치요구가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그만둘 것까지 고려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문제점

이 교사의 고민은 야간보육교사가 가지는 고용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왜냐하면 밤 9시30분이후에 남는 아동의 수가 5명이 되어야만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그나마 아동 수에 있어 변동이 생길 경우, 그래서 3명으로 줄어들 경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그런 상태가 2달 이상 지속되면 구청은 지정시설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줄어들면 보육교사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 야간보육의 수요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야간보육교사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진다.

또한 야간 보육아동 수가 늘어서 두 명, 세 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정부는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7~8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1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료로 충당하기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명의 교사만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정책은 여성과 아이들만이 있는 보육시설의 야간 운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안전' 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야간보육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성인 2명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대부분의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야간'에만 보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간보육의 연장선상에서 야간보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간보육이 용이동을 주간보육아동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책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간보육에서 아동의 정원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불편한 보육환경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주간보육시설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간만 바뀌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종일보육이후 야간연장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하루종일 동일한 공간에서 지내게 된다. 인권적 측면에서, 이것은 '폭력'이다. 일본 오사카 지역의 야간보육시설을 견학 적이 있었는데 주간보육을 하는 장소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낮에는 개방되지 않고 야간에만 개방된다. 온전히 야간보육만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주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낸 아이들이 야간보육시간이 되며 그 어린이집 공간 옆에 있는 야간보육을 위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주간과는 다른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정부의 휴일(일요일,공휴일)보육정책은 더욱 문제가 큰데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 순환근무"로도 가능하게 해놓았다. 현재 연일차 등 기본적인 휴가

사용조차 어려운 보육현장에서 주중 근무 후 휴일까지 순환근무를 한다면 보육교사의 피로
가중과 이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3. 양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우수하며 안전한 보육이다.

‘야간보육시설 1,000개 증설’과 같이 양적 수치로만 평가되는 정책이 아니라, 보육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이 자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이 1,000개의 야간연장보육시설이라는 수치상의 성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른
다. 그래서 5명씩 어렵잡아 5,000명의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 장소
가 생긴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이들의 사고, 질병,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안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것은 1,000여명의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
게 일하는 안정된 보육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실제 현장의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가르치는 것과 아동인권 침해의 딜레마 (2)

서정은 · 본 회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서정은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두들 몸 건강하셨지요? 아이들과
더운 여름 보내느라 모두들 비지땀을 흘렸을 텐데...그저 글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의 이야기

지난 5,6월호에 실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부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교육적 지도에 ‘신체적 처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적인 지도를 아동학대, 아동 인권침해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것은 체벌을 교육적 행위, 즉 ‘훈육’의 행위로 용인해 온 우리나라의 관습
에 바탕한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아이들을 뺨가 배워
내야 하는 교육의 수혜자이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더불어 때려서라도 가르쳐
야 한다는 가르침의 기제, 학교의 기제가 보육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 보육계 전반의 분명한 책
임의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육시설은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보육시설은 그 아이들
이 커서 배워야 할 것을 이른 나이에 미리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제도가 틀로 지워놓은
제도교육이나 성인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배워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
조할 점은 보육시설이 꼬맹이들을 잘 훈육하도록 만든 작은 학교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아이에게 ‘나눔’을, 자립하지 못한 아이에게 ‘공존’을, 자아 분

화중인 아이에게 '타아'를, 사회화와 적응의 기제 속에서 강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보육에서 제도교육에서 이뤄지는 가르침의 문화와 의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아동의 인권침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령 아이들의 발달상 필요한 부분은 정서나 신체 등 비인지적인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이며 누구도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배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육은 보육에서 가져야 할 새로운 이념과 정신, 문화가 있어야 하며 학교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교육적인 전문성과 권위를 지닌 학교선생님으로서 존경받길 원한다면, 동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는 아이에게도 신체적인 접촉과 관계성보다는 교육적인 내용의 전달이 우선할 것입니다. 무언가 할 말이 많고, 교육할 게 많은 선생님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교육적 행위 안에서 다듬고 훌륭한 성인으로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실존하는 아이로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식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교사일수록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활동 위주의 보육의 관습, 그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수히 행해지는 아동의 대상화, 아동의 객체화에 대해 좀 더 고민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보육의 교육적 관습을 되돌아봐

우리들과 영유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교육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원장, 교사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교육적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에서 가치와 존중을 찾아야 합니다.

체벌을 비롯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이상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성인에 의해 행해 집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인의 문제입니다. 때리고 혼내고 겁주는 것은 성인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훈육방법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동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결국 성인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성인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루길 포기한 환경의 문제입니다. 다인수 학급이라는 환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있는 이상,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는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정원초과의 문제는 시설운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아동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하는 교육적 행위의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행정행위일 뿐, 아이들의 인권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벌 없는 보육현장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배움 learning'이 즐겁고 재미난 일 즉, 'fun'임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앞서 교육에 반드시 벌이 필요한가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에 벌을 가하는 체벌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벌은 배움을 즐겁고 재미난 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가 책임감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괴로운 경험'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라는 연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홀트라는 학자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순간 우리는 학습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규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훈육행위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또한 벌 없이 진행되는 교육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을 배우는데 있어서 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경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배우는데 있어서 상과 벌을 동시에 연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 보육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벌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언어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적 기회가 교사들에게 자주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회에서 진행한 '교사인권 워크숍'에 참석한 많은 교사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언어와 행위를 아동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 놀라워했지요. 내가 자주 쓰는 말과 행위를 다른 동료보육교사들도 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의 입장에서 들으니 비교육적인 말과 행위였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신체에 가하는 벌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노동이라 할 보육 속에서 이뤄지는 정서적인 벌 즉 무관심이나 무시, 거절, 제외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셜 로젠버그(Marshall Rosenberg)는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벌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지 아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사람이 지금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해주기 바라는가? 단지 이 첫 번째 질문만을 한다면 처벌이 효과적일 것이다. 욕박지르거나 벌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나는 이 사람이 단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듣기 위해 행동하기를 바라는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해보면, 처벌은 성의와 자부심을 해치고 행위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외부적 결과에 차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비난과 처벌은 사람들을 고무하려는 순수한 동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보육 안에서 아동의 인권적 가치와 태도를 격려하는 지도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이들의 의사표현을 아동의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 협박, 강요, 통제의 훈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아동개인의 상황이나 조건, 취향, 개성 등을 살리는 가운데서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과의 접촉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개인과의 접촉시간 늘리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성인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일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즐거운 음식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의 식단 작성이나 성인이 나눠주는 (배식) 일 거리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인이 재우는 낮잠이 아니라 아동이 잘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육의 전체 일정을 아동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의 표현처럼 보육시설이 '선생님 집'이 아니라 진정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보육 이념에서 아동 인권의 현장으로

힘없는 사회 약자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 26조)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아동학대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신고 의무자' 이기도 하구요.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4)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하는 것을 보육의 이념(제3조)으로 삼는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법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실한 급식의 문제나 90%이상의 어린이집에서 년1회 이상 다발적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급식이나 안전사고 영역은 객관적으로 조사되기 쉽고 그렇기에 그 실태가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보육아동들의 생활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별다른 측정도구나 조사방법조차 없어서 그 실태조차 알려지지 않는 학대를 비롯한 아동인권 침해 영역에 대해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적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마다의 아이들이 본래 갖고 있는 내적 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아이들을 성인의 언어로, 성인의 힘으로, 성인의 제도로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처음 보육현장에 발 디뎠을 때 가졌던 그 느낌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육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동인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육 안에서 아동인권을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가 자주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현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선점, 한계 등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아동권리의 행동 수칙을 제정하고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사회에 공표하는 과정을 낸 행사처럼 벌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의 바람과 요구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필요하겠구요.

보육시설을 아동인권 영역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대표를 뽑고 성인들 대표와 함께 보육 환경을 살피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나 영양에 대해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게 얼마나 건강권과 연관되어 있는지, 비교육적인지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실외 공간이나 다른 학급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 교육적 지도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차별감을 느껴서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과된 정원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딱딱한 시간표와 하루 종일의 줄서기가 힘들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이즈의 유아용 변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6세 아동의 의견이나 수건걸이가 너무 높다는 4세 아동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권 없이 책상 위 이음표로 구분된 정해진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떼가 아닌데도 피아노나 실로폰, 종소리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학급에서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호소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중요한 안전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다루는 것도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저 별천지에서 똑 떨어진 하등동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간'으로 아이들을 여기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성인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대우하는 게 보육시설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돌봄의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자는 말을 너무 길고 어렵게 했나요?

회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꾸벅 ^^



서정은님은 지난 8월24일 삼년간의 일정으로 독일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서정은님의 인권강의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돌아와 함께 할 시간을 기대해봅니다. 그동안의 한국보육교사회에서 행한 다양한 활동과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글씨 쓰기

강영신 · 회원 · 평동어린이집

아이들과의 일상을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원고를 써야할 때는 그때의 일들이 자세히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때도 있고, 이미 자료를 정리했을 경우는 참 난감하다.

7,8월은 교사들의 정기휴가로 통합보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7세반 보육기의 내용이 그간 진행했던 것보다 약간 빈약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6,7세 통합보육에 대해 기록해 둔 것을 기초로 글을 써보고자 한다.

6,7세반 아동 중 취학 전 아동이 17명인데, 읽기는 잘하나 쓰기엔 아직 자신이 없는 몇몇 아동들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럴 때 아이들은 느긋하지만, 부모님들은 이 느긋함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학습지를 하기도 한다. 조카아이는 3살 때부터 글을 읽고 그러는데 자신의 아이는 7세인데 글씨에 영 관심이 없다며 걱정하기도 한다. 하긴 우리 둘째 아이가 1학년 때 겨우 자기이름 석자만 썼는데 나도 걱정이 되어 7월부터 학습지를 하기도 했다.

아무튼 일상적인 읽기와 쓰기에 대한 고민은 취학 전 아동을 맡으면서 계속적인 고민이다.

하나. 아이들이 느끼는 읽고 쓰기의 어려움

우리글은 읽는 글과 말하는 소리가 다르다. 모양이 같은 한글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대부분의 글들은 아는 글자인데도 소리나는 데로 읽으면서 못따라 쓰기도 한다. 요즘은 문장을 통한 통문자로 배우다 보니 받침에 대해 잘 모른다.

미움이라고 하면 '네모요' 이움이라고 하면 '동그라미요' 라고 한다. 난 열심히 네모대신 미움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대신 이움이라고 말해준다. 식사시간이나 간식시간에 나오는 순서를 정할 때 예전에는 '7살 나오세요 여자친구 나오세요' 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름에 '니은' 들어가는 친구 나와요, 비은 들어간 친구 나와요' 라고 말해주면 내이름 친구이름 열심히 생각하면서 '야 너 이름에 00있잖아' 하면서 알려주는 모습이 참 이쁘다

읽기와 쓰기에 대해 제일 쉽게 많이 접근했던 방법은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이다.

1. 교사가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그리고 싶은 부분을 그려 본다.
2. 아이들이 그린 그림의 설명을 교사가 적는다.
3. 한참 후(바로 하면 힘들어 하니까, 대부분 한달 정도 지나서) 교사가 적어둔 내용을 작은 종이에 옮겨 쓰고, 아이에게 따라 쓰도록 한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면서 어떤 지점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열심히 그렸는데 나중에 옮겨 쓰라고 하면 힘들어한다. 대신 써줄까 하다가 보고 그리기라도 하면 되니까 그냥 놔둔다.

종이에 교사가 두 줄로 써주면 아동도 그 넓은 종이에 두 줄로 쓴다. 그러면 천천히 알려 준다. 연령에서 오는 차이가 바로 나타난다. 그리고 올해 우리 반 남아들은 글쓰기에 영 관심이 없다. 학기 초에는 그냥 놔두었다가 취학아동이라 내년엔 학교가면 글씨를 몰라도 옮겨는 써야할 것 같아 써보라고 한다. 가끔 남아들이 물어 본다 '글씨도 써요?', 봄 들살이 가서 부모님께 편지 써보기 했는데(집으로 보내지는 못했다) 남아들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거나 심한 경우 '생각이 안나요' 와 '어쩌라고'

* 딸.탈?

기태—이거 내가 그린거다.

교사—뭐 그린건지 알아?

기태—네. 근데 글씨는 못써요.

교사—예전에 기태가 반쪽이가 영감 말을 업어가요' 라고 한 건데, 보고 써줘.

기태—(기태가 그림1처럼 보고 쓴다.)

교사—(점심시간에 청소하는 삼촌보고)삼촌 이거 무슨 글씨 같아요?

삼촌— 탈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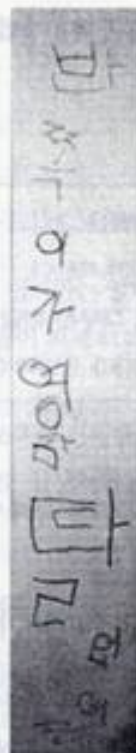


그림-가계가 따라 쓴 글

기태는 늦은 6세인데 글씨에 관심이 많다 형제가 위로 셋이 있어 가족이름을 쓰기는 하는데 자음모음이 가끔 바뀐다.

* 못이 3으로

교사—'총각 할아버지는 못 그렸어요' 라고 옮겨 써주었다.

관호—글씨가 이상해요 여기 3으로 되어 있어요(옮겨 써 줄 때 '못그렸어요'의 '못'자를 흘려서 써주었더니 관호는 그것을 3으로 본 모양이다)

빠른 7세인데 공룡과 바느질, 만들기에는 관심이 많다 쓰기 그리기는 관심 없고, 집에서 따로 학습지를 하는데 재미있어 하지는 않는다. 가끔 아이들이 주고받는, 혹은 교사와 아동간의 대화가 있을때, 얼른 일지를 꺼내 중요단어만 적어놓으면 '영어같다' 라고 말한다. 관호한테 무엇인가 써 줄 때는 정자로 또박또박 써주어야 한다.

* 쓰는 글씨, 그거 아니잖아요

재활용품으로 동물 만들기를 했다. 회정이 말한다.

회정—(악어를 만들어서 보여주네) 악어 어떻게 써요?

교사—악, 어, 요.

회정—네?

교사—아버지 할 때 '악'에 ㄱ하고, 어머니 할 때 '어'예요.

회정—아저잖아요.

교사—쓸 때는 '악어'라고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아저'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쓰기를 하고 있을때 영서가 말했다.

영서—'엇'자 어떻게 써요?

교사—뭐할 때 쓰는 '엇'자요?

영서—'엇때'할 때, 하는 '엇'자요

교사—어머니 할 때 '어'자를 쓰는데, 쓰는 글씨하고 읽을 때 나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엇'때의 엇자는 '어'라고 쓰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엇'이라고 읽는 거예요.



※ 동그라미 있어야 하잖아요

은수—'ㅅ' 자 어떻게 써요

교사—보아의 보자 쓸 수 있어요?

은수—네.

교사—'보'에 'ㅅ' 자 써요

은수—'ㅅ' 자요?(나랑 마주보고 있었다)

교사—아니 'ㅅ' 자요

기태—(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자는 앞에 'ㅇ' (동그라미) 해야 하잖아요.

※ 친구 따라 쓰기

교사—우리 광교산 다니온 것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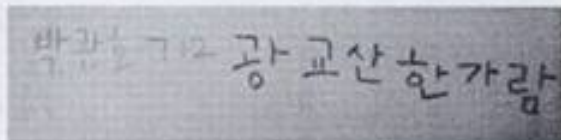
웅기,관호—난 광교산 글씨 못써요

교사—그럼 친구가 쓴 거 보고 써요.

(관호,웅기는 가람이가 쓴 광교산을 썼는데 가람이는 '광교산 한가람'이라고 썼다)

관호—박관호 712 광교산 한가람 (숫자는 날짜다)

웅기—광교산 한가람 김웅기 라고 썼다



교사가 한참을 웃으니까 관호와 웅기는 왜 웃는지 모르고, 가람이는 자기이름이 친구들 그림 속에 있는 것을 보고는 웃는다.

둘.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는 읽고 쓰기 시도들

우체국놀이를 하는 중이었는데, 아이들 몇몇이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 종이는 엄청 크고 내용은 거의 똑같다. '응 고마워 하면서 받고, 5시가 넘어 정리 할 때쯤 '핑동 핑동 여기 평동 어린이집이지요 편지 배달 왔어요, OO 있어요? 자요 편지요' 라고 말하면 몇몇 아들은 얼른 연필을 가지고 가서 써오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 반은 편지쓰기가 한창이다.

지난주는 글씨를 쓸 줄 아는 아들은 글씨를 쓰고 글씨를 못 쓰는 아들은 그림을 그린 후 설명을 교사가 써주었다. 편지는 우체국에 가서 함께 우표를 붙여서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3곳에 보냈다.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나마 내용이 나오는데, 모르는 다른 어린이집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워했다. 궁금하다 답장이 올지..

일주일간 편지쓰기 했던 것을 스크랩해서 현관에 놔두었다. 남자 아이의 엄마들은 여자아이가 쓴 편지를 보면서 신기해한다.

아이들의 편지를 그대로 옮겨본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호지영이 언니 나무초려 사랑해요
(한장의 종이에 아는 사람 다 적었다)
-미연

관자랑해요 오래오래 사랑해요. 그런데만 나 무초령 사랑해요 나무초려에게 호지영이가 나무초려한테 보내요 내가 보내 호지영이가 사서 보내 가보아요 내가 보내요 우리 바주주서 오마요. 아빠 사랑해요 해사가는이 힘드러지요
-호지영

소경민! 너 지금 모야니 소경
민 너 잘 잤니 너 오늘 어린이집 안가니
안간니(다른 어린이집 다니다가 7월에
새로왔다) -38명

이거야 사랑해(좋아하는 친구다 람자의
리 뒤집어져있다) 도현아 사랑해(동
생인데 도자의 디 뒤집어져있다)
-진아

엄마애 사랑해요(그림도 자세히 크게 그
리고 책 읽는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쓰는
것을 싫어한다 "잘게 없어요"한다)
-신혁

넌 사랑해 내일 아침에 만나자(본인 이
름만 겨우 쓰는데 제일 좋아하는 친구
라 물어보아서 썼다고했다)
-정민

엄마애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자음,
모음을 다 다른색으로 썼다)
-은수

유미애애 유미애 사랑해 우리내일 또 가
놀이 하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시켜
어서 내일애 놀자 아죽아죽 사랑해요 다
론 유치원은 바느질도 안했는데 평동어린
이집에서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정서

이때 부모님들은 스크랩된 글들을 보면서 몇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집에서 글쓰기를 전혀 안한 아이가 글을 소리 나는 대로 써도 너무 신기해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림만 그리고 교사가 받아 적은 글들을 보면서 학습지 시켜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한다.

또 다른 읽기 작업의 하나는 생일잔치에서 하는 슬라이드 공연에 아이들이 직접 동화책을 읽고 녹음 한 후에 틀어주었던 일이다.

7월에 했을 때 녹음한 3명의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한다. 8월에도 3명의 아이들이 돼지책을 직접 녹음했다. 일주일 후에 녹음을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었더니 녹음하기로 한 3명의 아이들은 계속 읽기 연습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이 안되어서 목소리 녹음만 여러번 들어 보았다. 생일잔치가 지나고 나서 그때 녹음한 2명의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책을 읽고 있다. 같이 녹음한 1명의 아이는 책을 다 외우고 있었다. 목소리 녹음은 계속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올것이라 믿는다.



가을 이야기

이지영 ·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

아기 곰의 가을 나들이(데지마 게이자부로 글 · 그림/ 정근 옮김/ 보림)

주세요 주세요 -가을에 먹는 과일(도서출판 보리 기획/ 이태수 세밀화/ 유진희 그림/ 보리)

바빠요 바빠(윤구병 글/ 이태수 그림/ 보리)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우리 곁에 가을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여름내 울어대던 매미대신에 귀뚜라미가 켓가에 노랫가락을 속삭입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쪽빛을 자랑하며 드높이 웅대함을 펼치어 놓습니다. 이제 산과 들도 옷을 갈아입고는 봄날 꽃밭보다도 더 화려한 색으로 온 강산을 물들여 가을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겠지요.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곡식을 거두어 풍성하게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에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시인처럼 노래를 한 수 읊조리게 하는 풍성함을 마음에 쌓는 시기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책이 집중할 수 없었기에, 바람이 시원한 이 계절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허전해진 가슴을 채워줄 따뜻한 이야기를 읽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첫서리가 들판에 내리고 나면 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짧은 계절, 이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볼 수 있는 그림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아기 곰의 가을 나들이(데지마 게이자부로 글 · 그림/ 정근 옮김/ 보림)》에는 처음 가을을 맞이한 아기 곰이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을 보여줍니다. 북쪽나라에는 울긋불긋 산이 물들고, 높고 맑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며, 어치 소리가 들려오는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기 곰은 엄마 곰을 따라 난생처음 연어를 잡으러 강가로 갑니다. 달빛이 숲속을 비출 때 파랗게 일렁이는 강물 속으로 연어 떼가 몰려듭니다. 연어를 물고 나타난 엄마 곰을 보고 아기 곰도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은 달빛이 비쳐 파랗

게 일렁이고 연어는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드디어 자신으로 힘으로 연어를 잡은 아기 곰은 자랑스럽게 입에 물고 부르르 물방울 떨어 물에서 나옵니다. 달이 지고 밤하늘 가득 별이 반짝일 때 아기 곰은 엄마 곰 앞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로 커다란 물고기가 밤하늘을 유유히 헤엄치는 꿈을요.

달빛이 흐르는 강가에 가을 나들이를 나간 아기 곰의 꿈과 성장이 힘찬 목판화의 힘차고 굵은 선과 절제된 색채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겨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엄마 곰과 함께 먹거리를 찾아 연어잡이에 나선 아기 곰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 아이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에 달빛이 비추어 생긴 그림자를 커다란 물고기인줄 알고 잡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귀여운 우리네 아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가을에 먹는 과일(도서출판 보리 기획/ 이태수 세밀화/ 유진희 그림/ 보리)〉은 사과, 배, 감처럼 가을에 수확하는 우리네

신토불이 과일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입으로 맛을 볼 수도 있고, 또 냄새도 맡아 볼 수 있어 오감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는 과일들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오른쪽 면과 왼쪽 면으로 나누어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왼쪽 면에서는 엄마가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아기는 '주세요'라며 무언가를 원합니다. 엄마는 과일을 한 개씩 꺼내 보여주면서 '사과줄까?', '배줄까?' 라고 묻습니다. 엄마가 보여주는 과일을 오른쪽 면에서 세밀화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은 바구니였어요. 엄마가 과일을 다 꺼낸 후에야 아기는 자신이 원하던 바구니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갑니다.

〈바빠요 바빠(윤구병 글/ 이태수 그림/ 보리)〉은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눈길을 땔 수 없는 그림책입니다. 우





선 앞표지를 보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의 한 산간마을을 배경으로 했다는 설명답게 참나무 껍질을 대어 지붕을 엮은 굴피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감과 옥수수가 처마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고요, 자루에는 무언가가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방문턱에 걸터앉은 할아버지는 눈이 내리면 신발 밑에 대는 설피를 엮으시고요, 할머니는 키질을 하시고 손자는 꽃감을 만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표정으로 보아 꽃감을 하나 빼먹으려다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은 아닐까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고요.

속지에 그려진 높은 산과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 풍경으로 이 마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각 장면에서 반복되는 '바빠요 바빠'처럼 겨울이 빨리 오는 산골마을의 가을은 매우 바쁩니다. 맨드라미가 빨갛게 피어나면 옥수수를 말리고 참깨를 터느라 바쁘고요,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나면 고추를 말리느라 바쁩니다. 또 미루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면 콩을 터느라 바쁘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벼를 베느라 바쁩니다. 감이 빨갛게 익으면 온 식구가 꽃감을 만들고, 서리가 내리면 배추와 무를 뽑아 김장을 하느라 온 동네가 바쁩니다. 부엌 부엌 부엌이 우는 밤이 되면 할머니는 콩을 고르고 손자는 잠이 듭니다.

지금 농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벼를 수확할 때 기계로 하고, 고추도 건조기에서 말리는 현재의 농촌과는 달리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가을걷이를 합니다. 또 온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분들이 꿈꾸는 사회의 일면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가을이 되면 볼 수 있는 자연의 변화와 도리깨, 낫, 키와 갇이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농기구, 산골마을 집에서 볼 수 있는 벽난로처럼 생긴 코불, 또 박바가지, 뒷박, 채반, 갈대자리와 같은 생활용품들까지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매우 풍부합니다. 책 구석구석에 화가의 세밀한 관찰과 애정을 느낄 수 있으며, 콘테와 수채화 기법을 사용한 까슬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가을의 정취를 더욱 잘 전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빗소리 들으러 가요. - 네 살 아이들과 함께 「아저씨 우산」을 읽고 -

신선주 · 회원 갓골어린이집

이 글은 지난 호 [좋은 그림책 소개] 코너에서 세권의 비에 관한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신선주 회원님과 박영란 회원님이 쓰신 글입니다.

갓골어린이집은 충남 홍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이라고 부를 만큼 넓은 마당이 있는 행복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농촌보육시설입니다. 신선주 선생님은 만2세 아이들과, 박영란 선생님은 만3세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무얼 할까?

"비가 와서 수영 못 하겠다", "오늘은 밖에서 못 놀겠는 걸"

"비 맞으면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모든 바깥놀이 일정은 취소되고,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크게 움직이며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대신하곤 한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 일쑤다. 그래서 아이들도, 교사도 비 오는 날은 싫다.

그런데 이제는..

비를 기다린다. 빗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읽어주는 내내 아이들은 궁금해 한다.

"아저씨가 왜 우산을 안 써요?"

아저씨가 공원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비가 내려서 아이들에게 물었다.

"비가 오네, 아저씨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그림책의 아저씨 우산을 두드리며 "빨리 우산 써요" 하며 걱정해주었다.

아저씨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나서 빗소리를 확인하려 우산을 꼭 펼쳤을 때

여기 저기서 "우와~" 하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림책을 보다가 창밖을 보니 마침 비가 내렸다.

“우리도 빗소리 들을까?” 했더니 아이들 모두 창에 매달려 귀를 귀울인다.
 퐁포로롱... 소리를 따라하면서,
 잠시 후 아이들이 졸라댔다. “선생님! 우리도 빗소리 들으러 가요!”
 우산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에서 꺼내온 것은 비닐터널을 만들고 남은
 커다란 비닐, 조금씩 잘라 아이들의 비닐우비를 만들었다.
 만들었다기 보다는 만화에 나오는 사오정처럼 아이들에게 씌워 묶어주었다.
 잔뜩 기대에 부른 얼굴로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새 비가 그쳤다.
 기껏 나왔더니.. 하고 실망하는데 아이들은 신이났다. 어린이집 마당에 생긴 작은 물웅덩이
 에서 찰박찰박 물장난도 치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고
 “여기 비와요~” 했다. 나도 생각난 것이 있어 아이들을 불러 모아 나무 밑으로 갔다.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었더니 비가 오는 것처럼 물방울들이 쏟아졌다.
 “와~ 비온다” 하며 아이들도 퐁퐁 뛰며 좋아했다.
 한참 노는데 비가 내렸다. 아이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비를 맞으며 빗소리를 들었다.
 “퐁포로롱..” 하고 그림책의 빗소리를 흉내 내기도 했지만,
 우리의 비닐 우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투투투 투투투...”
 그 날의 비닐 우비는 교실 구석구석에 널어두었다. 잘 말렸다가 비가 오면 또 나가려고..
 비 오는 날 아이들과 함께 빗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은 신나는 날

- 다섯 살 아이들과 함께 -

곽영란 · 회원 갯골어린이집

무더운 여름날 만 3세의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다.
 땀에 범벅이 되어도 뛰고, 구르고, 달리는 놀이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우리 아이들...

비가 오는 날에는 여지없이 교실에서만 지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인 나, 아이들은 모두 실
 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운동장에 나가면 물과 모래놀이로 연못과 저수지도
 만들고

모래성도 쌓고, 수영장에서 하는 물놀이 또한 말할 수 없이 재미있는 놀이인데 교실에서는
 교사의 눈초리가 무섭다. 뛰지 말아라, 앉아서 놀자, 살살, 뭐든지 조심조심...

일기예보에서는 내일과 모레, 이를 동안 큰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아이들
 도 동원하자마자 “선생님 비 온대요, 아주 많이 온대요, 비 오면 운동장에 못 나가지요?” 하며
 근심어린 눈빛이다.

그래, 이번 기회에 비 오는 날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마음먹고 보육교사
 회에서 보내온 책 3권을 가지고 아이들과 읽어 보며 나는 계속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

마침 교실 창밖으로는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교사: “바람이 불고 어두워 지네”

아이: “선생님, 바람이 구름을 데리고 와요”

아이: “어! 창문에 비가 오네”

아이: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비는 하나님께서 수박 많이 먹고 오줌 싸는 거래”

아이: “우 해해~ · 그럼 오줌 냄새 나겠다”

아이: “선생님! 그래서 비가 오면 쉬~소리가 나요?”

교사: "우리 00이는 비 오는 소리가 쉬~쉬~하는 소리로 들렸구나. 아주 멋진데."

교사: "우리 비 오면 운동장에 못 나가서 속상한데 한번 나가볼까?"

아이: "안돼요, 비 맞으면 우리엄마가 머리에 이 생긴 대요"

아이: "감기도 걸리지~"

아이: "산성비가 많아서 머리가 빠진대요."

아이: "우산 쓰고 나가자."

아이: "난 우리 엄마가 데리러 와서 우산이 없어"

비는 조금 오다 그치고 번개가 번쩍하면서 천둥소리가 난다.

교사: "천둥소리는 하나님 방구 뛰는 소리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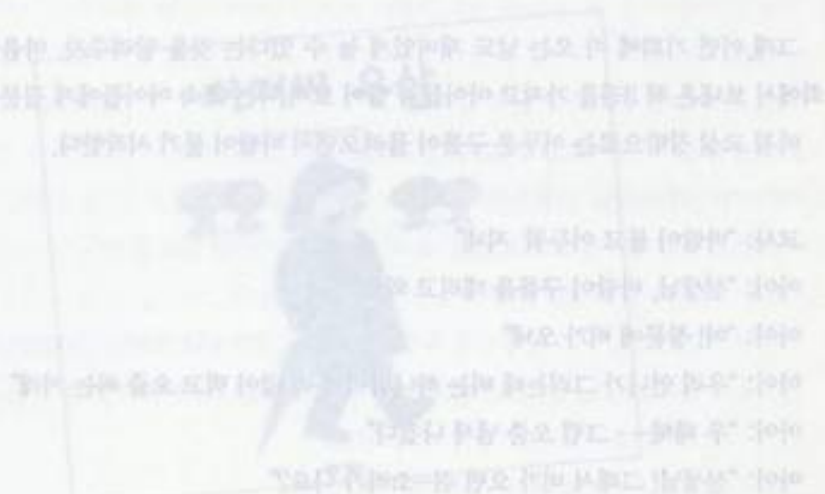
아이들: "방구, 우와! 하나님이 방구 편대. 호호, 깔깔"

아이: "번개는 무서워요,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아이: "번개 치면 컴퓨터 코드 빼야 되요, 기계가 터져서 컴퓨터가 폭발 하거든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비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 비를 맞으며 느낄 수 있는 좋은 느낌, 호기심들을 끌어내려 열심히 유도 했지만 무리였다.

나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비가 오면 밖에 나가 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한 번의 시도로는 어려웠다. 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비 오는 날도 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었고 그로인해 아이들도 비 오는 날이 신나는 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리는 자연학교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박부자 · 회원, 동그라미어린이집 시설장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며 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의 경험을 연장할 수 없으니 안타깝게도, 졸업한 아이들과 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에서 함께 나누는 어린이집의 역할을 확장해 가는 모범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소개합니다.

자연체험활동과 관련해 어느 누구는 봄이 일었고 이도 한때의 유행이라 말하기도 한다. 어린이 관련단체, 환경단체, 문화센터, 대안학교, 계절학교, 주말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자연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추세고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잠잠해지고 사라지는 유행일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겠지만 자연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의욕만 넘치던 몇 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자연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해 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그러나 나는 한 학기를 마지막으로 그만두어야 했다. 어린이집 업무와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아쉽지만 접어야 했다.

다시 자연학교를 시작하면서 그간의 오류와 한계를 교훈으로 현재 한 학기를 자~알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 중에 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산을 오른 지 어~언 10년!! 도시는 열 번은 변모했고 그 속에 변화에 게으른 나와 잘도 변화하는 아이들이 섞여 자연을 찾아 나서고 있다.

1. 배경 및 목적

유아기, 보육시설에서의 자연친화적 활동을 초등학교로 확장하여 감수성을 계속 살려나가고, 초등학교 체험학습의 길잡이와 지원의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에 가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체험을 통한 학습구조가 빈약하다. 또한 체험학습이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인 자연체험 학습의 장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자연 속에서 놀며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고, 지역의 자연을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의 해방 공간이다.

놀이공간과 문화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놀 줄 아는 방법을 소개하고, 아이들을 건강한 문화로 인도하도록 한다.

아이들은 가까운 곳에 자연을 놔두고 방학 때, 멀리서나 찾는 것을 자연으로 알고 자랄 수 있다. 가급적 지역의 산과 들 공원을 활용하여 늘 가까이 언제나 귀 기울이면 자연이 아이들과 존재함을 알도록 해준다.

어린이집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졸업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늘 아쉽고,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기도 하던 터, 동문회를 조직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던지라 자연학교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리면서 졸업 아이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린이집 졸업생을 기본으로 그 외 관심있는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자연학교를 매개로 보육시설의 지역사회센터로의 기능을 강화한다.

자연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인근 초등학교생들이 대부분이며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지역의 공적공간으로 여기며 편안해 한다. 또한 평일에도 아이들이 가끔 찾곤 한다.

2. 진행과정

◆ 자연학교 조직구성, 운영 논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생태강좌와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자모1인, 외부 뜻있는 생태안내자 1인, 시설장1인으로 총3인으로 구성. (2005.1월 - 3월)

◆ 참가대상 : 7세부터 초등학교생 30명

◆ 학기제 운영으로 매월 2회 진행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둘째 주 토요일 1:30 - 5:30 / 넷째 주 토요일 9:00 - 2:00

◆ 참가형태: 회원제 형태로 유료운영

◆ 홍보활동

인터넷 홍보, 설명회 개최를 통해 관심 있는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수렴 함 (3월 2주간)

◆ 기터활동

학기 중간에 무료로 가족 숲체험 진행을 통해 학부모 참여 독려
방학 중 2박3일간 여름들살이를 개최하여 한학기를 총화 함.

◆ 월회 소식지 발간 "토요일은 자연에서 놀자"

◆ 프로그램 - 별첨

3.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 한 학기를 마치고....

한 달에 두 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1회의 체험에 항상 두 번 이상 답사를 하고, 준비물 챙기고, 회의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두 분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토요일은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시·공간적으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연학교가 진행되었다. 물론 시설장인 나는 어린이집 나들이 외에 두 번의 긴 시간을 내야 하고, 못생긴 얼굴이 더 팍 상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 생각한다.

2학기는 프로그램 위주의 학습적 접근을 줄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을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흥미 개량 등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한 틀을 짜보려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열정을 갖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였음 한다. 그래서 내년엔 더 많은 꿈을 꾸고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나무를 서로 바깥은 '바깥' 놀이 - 무를 가지고 노는법식 그대로 나무사이로 잘도 뚫니다.



작동산 습지에서 식물물 관찰하기



익곡 논에서 앞 논두렁을 거닐며

[자연학교 프로그램]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1학기 과정

학기 / 월일	프로그램	장소	준비물
4월	16일 봄 맞이하는 꽃 관찰하고 느끼며 자연과 친구하기 <내가 찾은 꽃 3가지 특징과 색깔 비교하여 말하기> 관찰 - 봄꽃 모양 그리기, 거울을 난 나무	원미산	
	30일 열려라 꽃나라 우리나라 야생화 - 봄 야생화란 무엇인가 관찰 - 우리나라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 그려보기	천마산(경기도)	
5월	14일 습지관찰 - 물이 필요한 식물 연못안의 곤충 종류 알아보기 관찰 - 개구리 알과 올챙이	작동산 습지	
	28일 숲에서 놀아요(1)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져보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부평 계양산	
6월	11일 소금쟁이와 올챙이 논에 사는 식, 생물 알아보기 알 낳고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 관찰 만들기 - 풀로 만드는 지네		
	25일 생태공원 나들이 김동자연생태공원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 관찰	서울 <김동생태공원>	
7월	9일 딱따구리를 찾아서 숲에 누워 새소리 듣기 - 내가 들은 새소리 표현해보기 도감만들기 무엇이 다를까요-식물분류	춘덕산	
	23일 여름들살이(2박 3일) 자연물로 만들어 할 수 있는 전래놀이 나무곤충 만들기, 물놀이와 강에 사는 하루살이와 물고기	강원도	

자연을 그리는 아이들-2학기 과정

학기 / 월일	프로그램	장소	준비물
9월	10일 생태미술 실내수업 - 한길순 선생님	동그라미 어린이집	
	24일 곤충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곤충 백가지 - 생김새와 특징 알아보기 관찰 - 보고 그리는 곤충	춘덕산	
10월	8일 옷을 갈아 입어요, 나무와 열매 씨앗 알아보기 열매, 씨앗 도감 만들기	성주산	
	22일 풀꽃아 안녕 야생화 알아보기 - 가을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우리 꽃, 우리 나무 알아보기	분당 맹산 자연학교	
11월	12일 천연비누 만들기, 염색해 보기 만들기 과정과 생각 적어보기	동그라미 어린이집	
	26일 숲에서 놀아요 (2)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져보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춘덕산	
12월	10일 날아라 새들아 겨울철새 탐조 - 생김새와 색깔 재미난 새 이야기	안산	
	24일 겨울들살이(2박 3일) 얼음위에서 하는 전래놀이, 겨울나무 별레집 찾아보기 집으로 만드는 내작품 관찰 - 겨울나무 세밀화	홍집(경기도)	

혼합연령 보육의 시작 공터의 기억으로부터..아이들의 환성을 바라며..(3)

성애원 · 정리 편집부

한국보육교사회는 12년째 오사카지역의 일한보육교류연수협의회와 한일보육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다문화 보육을 하고 있는 곳은 성애원과 성화보육소, 희망의 문입니다. 다문화 보육은 지역화하면 종적보육인데 즉, 연령별 반구성이 아닌 유아의 경우 3,4,5세가 함께 혼합연령으로 반 편성을 하여 보육하는 혼합연령보육을 말합니다.

혼합연령보육의 운영은 각보육소에 따라 서로 교육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연령보육이라 하더라도 성애원은 장애아통합보육(통합보육)을 하고 있고, 성화나 희망의 문은 자유보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연령보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성애원에서는 한반에 4개 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성화보육소는 연령별 보육과 혼합연령보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의 문 보육소는 혼합연령 속에서 짝(pair)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약간씩 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성애원에서 발간한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이란?—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추구하는 것]을 번역, 요약 한 것입니다. 보육소는 보육시설을, 보모는 보육교사를 지칭합니다. 지난 호에서는 혼합연령보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보육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이번호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성애원의 다문화 보육은 다양한 시도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정리 작업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애원의 경험이 다시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자의 어색함을 양해해주세요~

어린이 자신들의 세계로서의 [공터]

1981년부터 시작된 전면혼합연령보육은 성애원을 [공터]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혼합연령보육이 어린이들에 의해, 어린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혼합연령보육을 시작한지 2년째 되는 해에 이미 어린이들은 백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했다

보모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그 해, 혼합연령보육의 제비꽃 조를 담당한 보모는 혼합연령보육 담당자의 그룹의 대표자로서 회의에 참석할 일이 많았다. 같은 제비꽃 조의 또 한명의 담임보모가 쉬는 날에도 회의 등에 출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때의 일을 보모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올 초 반에는 누군가 대신해서 들어가 주었는데 연말 무렵쯤에는 반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나가야 하는데 잘 부탁할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무실에 이야기 하고]라고 말라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 식으로 하곤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반에 돌아가 보면 당번 활동인 청소도 깨끗이 해 놓고, 간식 준비도 잘 되어 있었다. 나는 겨우(어려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라고 얘기하고 간식을 먹는 것뿐이었다."

보모는 단순히 보조자

어린이들은 자신들만으로 스스로의 반 생활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보모는 단순히 보조자가 되기로 하였다.

또 그 해의 연꽃 조를 담당한 보모는 보육총괄에서 그 해 연꽃 조에서는 '이 아이는 여기에 힘을 쏟게 하도록 하자'는 개별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반성하면서 상점놀이인 [빵집]을 담당한 그룹이 종이 과자를 만들었을 일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담당보모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므로 백합의 00선생에게 뒤를 부탁하였다. 00선생은 열심히 종이과자를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는데, 문득 보니 기미코(지적장애를 가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기미코, 가위 좀 갖다 줄래?"라고 하니 기미코는 가위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과자를 자를 수 없었다. 그것을 보고 "그래 자를 수 없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후 생각을 고치고는 "역시 아무것도 안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 이거 잘라 볼래?"라고 다시 종이를 건넸다. 그러자 기미코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이를 잘랐다."

이것이 그 당시 모두가 만들어야 했던 과자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으나 그래도 그룹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 선생은 각자에 맞는 과제를 발견한 것이다. 보모가 이것저것 지시하는 경우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인 한편 보모들이 '보다 확실히 그 아이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었다.

어린이들이 운영하는 어린이 자신들의 세계

어린이들이 자신들만이 운영하는 어린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혼합연령보육의 목

표였다. 그래서 이 목적의식을 지닌 혼합연령보육의 부모에 의해 점점 [자주운영]이라 불리울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또 이것은 부모인 어른들도 대등한 존재로서의 어린이들을 발견한 것인 한편, 어린이들 스스로가 장애원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한다]는 세계를 만들려고 했고, [자신들이 한다]를 위해 친구들과 리 협력을 어떻게 만들까가 보육의 과제였다. [자신들이 한다]라고 하는 어린이들 사이의 공동성을 어떻게 길러주느냐가 과제였던 것이다.

자신들만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다.- 보육자가 필요 없는 보육

[자주운영]의 보육

혼합연령보육도 3년째가 되어보니 어린이들에 의한 자주적인 반 운영도 매우 순조롭게 되어 보육원에서는 [보육자가 필요 없는 보육]이라 자화자찬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리더를 선택

이러한 어린이들이므로 자신들의 보육원생활의 중심이 되는 리더를 뽑는 경우도 업적하다. 어떤 리더가 좋을까라고 어린이들에게 물으면

“○○는 선생님이 없을 때는 리더형과 놀아요”

“○○는 화를 자주 내요”

“급식을 나눠줄 때 ○○가 잘해요”

“○○는 ◇◇를 잘 돌봐줘요”

“○○는 장난은 심하지만 ◇◇를 잘 돌봐줘요”

“△△는 ○○를 늘 보살펴줘요”

등의 비평과 평가가 이어지는 것이다.

후기 그룹을 만들 때는 이 반년 동안의 학급을 돌아보면서 어떤 리더가 좋을까 어떤 그룹이 좋을까 그리고 어떤 반을 만들고 싶을까를 의논하게 된다. 특히 어떤 리더가 좋을까를 의논을 중심으로 보육자도 여기에 집중시키도록 한다.

아이들이 학급운영의 주체가 되어있다.

이렇듯 어린이들의 자주성과 하고 싶어 하는 기분이 존중되는 한편으로 반 운영에 관계되

는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어린이들에게 되풀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서로가 둘도 없이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임을 깨닫게 되어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함으로써 자신들의 학습 생활이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친구들과의 유대로 [선생님]과 대등하게 된 경험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커다란 일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를 맡은 백합도 한사람으로 놓고 보면 단순한 5세 어린이이며 힘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으나 이렇듯 그들이 서로 뭉치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이 자주운영으로 보육자가 어린이들의 힘에 새삼스럽게 감동하게 된 일은 무엇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이들’에서 ‘학급운영 주체로서 등장한 어린이들’로 어린이들로 보는 가치관이 변한 것은 큰 소득이다.

어린이 권리조약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어린이가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른의 로망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어른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곳에서 만들어진 어린이들끼리의 살아있는 세계-”

나.아.보.보살피는 일 지켰어요.

“일 그만 둘 수 없어요?”라고 어머니께 묻는 다케시

“엄마, 일 그만둬요. 나 보육원에 가는 거 싫어”라고 때를 쓴다.

“왜 보육원이 싫으니?”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나 보살피는 거 이제 싫어 지쳤어”라는 것이 1시간씩이나 한 모자의 대화 끝에 나온 대답이다.

어머니로부터 이 일을 들은 담임보모는 결정하였다. 다케시는 꽤 너그러운 타입이고, 백합(5세 어린이)¹⁾으로서의 자각도 있고, 그룹에서는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그룹에서 중증장애아인 샘물(3세 어린이)의 이쿠야가 있고 보모는 이 아이를 보살피는 일을 이 그룹에서 맡으라고 하였다.

이 해 후반에 새로 리더가 된 다케시가 아무리 똑똑한 아이일지라도 이쿠야의 장애는 심했

1) 편집자 주) 장애원의 혼합연령 그룹은 3,4,5세로 이루어져 있고, 3세 샘물, 4세 양, 5세 백합으로 구분한다.

고 주변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별로 힘이 없는 다케시가 말하는 것을 같은 그룹의 또 한명의 백합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을 보모에게 얘기해도 보모들은 “직접 그 애(또 다른 백합)한테 말해”라고 제쳐버리기 일쑤였다. 물론 양(4세 어린이)과 샘물 어린이들은 아직 이쿠야를 보살필 힘이 없으므로 왜 자신들만으로 이쿠야를 보살피지 못하는가를 최초로 말한 것이 되었다.

보모의 구망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는 중증장애아로 신체적, 지적 장애를 지녔다. **는 2세 때인 11월에 입학하여 약 5개월 간 2세 어린이반에서 생활한 후 혼합연령보육 학급의 하나인 제비꽃 조에 진급하였다. **는 실내외의 이동, 식사, 배뇨(기저귀교환)를 전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제비꽃 조에서 하였다.

별 조일 때는 주위의 어린이들이 **를 보살피는 일에 관심을 보였고, 어느 정도는 도와주었다. 그러나 2세 어린이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또, [혼합연령보육]과의 교류로 **를 보살피는 것을 도와주던 [혼합연령보육] 어린이들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혼합연령보육에 가면 그곳의 어린이들은 꼭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위의 어린이들도 **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고, 혼합연령보육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이므로 **와 함께 생활하는 제비꽃조의 생활도 어린이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반 어린이는 언제나 **에게 신경을 쓰도록 **에 관한 일을 반 어린이들에게 되풀이하여 왔다.

예를 들어 보육 중 어린이들을 모이게 할 경우 이동이 불가능한 ** (이 때는 기는 것조차 되지 않았다)를 내버려 두고는 어린이들은 부모의 주위로 몰려든다. 이때 부모는 "여러분들 왜 **를 잊어버리죠? 이제부터 **와 꼭 함께 생활해 갈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또 **를 도와주는 것(예를 들면 기저귀 교환이나 식사를 도와주는 일)을 처음에는 부모가 하지만 주위의 어린이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때부터 점점 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제비꽃조의 어린이들이 **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였으나, 매일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부모의 생각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옆에 있어줄 테니까”라는 보육자의 말처럼 **가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생각할 경우 **의 생활은 주위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일곱번째-

프로그램 김미나 · 회원

[별첨] 고정미 · 회원/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계비' 연구원/유아국악강사

지난 호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놀이 중에 글만으로는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는 내용을 중 몇 가지를 뽑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이어린이집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았구요, 김미나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시고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씩씩이친구들과 선생님들, 김미나선생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참 작년에 글을 쓰기시작하면서부터 약속드렸던 노래녹음을 얼마 전에 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녹음내용이 어떨지 들어보시고 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림 1 | 다리놓기(세기)놀이

우리네아이들 2004년 11.12월호

아이들끼리 놀 때, 상대방의 다리사이에 내 다리를 놓고 친구의 생식기를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리중간쯤(무릎정도) 까지만 내 다리를 놓고 노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2 | 말탄사람깨떡

우리네아이들 2004년 11.12월호

어른 등에 올라타서 놀았던 놀이를 친구와 함께 놀아보고 있습니다. 태워줄 수 있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합니다. 올라탄 친구가 너무 버거우면 태워주는 친구가 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다칠 우려가 있으니 세심하게 배려해야합니다.



| 그림 3 | 바람아 바람아
우리네아이들 2004년 11.12월호

요즘 대추나무에 달린 대추들이 한창 빨갛게 익어가고 있지요~
위의 그림처럼 다리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바람아 바람아'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하면 딱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있으니까요~
다리를 엮은 모습을 잘 보세요. 아~하! 아시겠죠?
다리를 엮기 전에 아이들 혼자서 한발 뛰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꼭!



| 그림 4 | 어디까지 왔니?
우리네아이들 2004년 9.10월호

앞 대장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짓고 있고(여유로움), 뒤에 붙은 친구들은 눈을 꼭 감고 머리를 숙여서 앞사람의 등에 대고 혹시라도 어디에 부딪히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한발을 내딛는 마음들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에 '다 왔다!' 하면서 앞대장이, 눈을 뜨고 도망가는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는 술래잡기놀이의 소개는 2005 3-4월호 앞머리에 있습니다.



그림 5 어깨동무씨동무
우리네아이들 2004년 9.10월호

어깨동무를 하고 노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놀아보다가 친구와 손을 잡고 놀아보다가 익숙해지면 어깨동무를 하고 놀아봅니다. 호흡이 맞고 장단이 딱딱 맞아 떨어지자 동작이 일치하게 되고, 마지막에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하면서 위로 봉 뗏다가 앉게 되었을 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림 6 쟁쟁놀이
우리네아이들 2005년 5.6월호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한명은 보자기를 하고 한명은 주먹을 하고 있죠? 얼썬! 하면서 쟁쟁 노래를 부르면서 보자기와 주먹을 바꿔줍니다. 계속 바꿔나가는 놀이입니다. 장단이 저절로 빨라지면서 노래도 빨라지고 동작도 빨라지게 됩니다.

강강술래의 부분놀이는 우리네 아이들 7-8월의 내용대로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의 만남으로 놀이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강술래 부분놀이는 다음기회에 사진을 찍고 그림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요?

민속놀이 진행을 많이 하실 텐데..... 씨름은 꼭 하실 테고..... “준비!” “시작!” 하면서 꼭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씨름 말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겨도 되고 져도 좋은 그런 씨름한판 어떠세요?

황소씨름 / 고등어 씨름

어디서 배웠나? /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어떻게 넘기나? / 요렇게 넘긴다?

고정미선생님이 노래하신 소리는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www.kdta.or.kr)→ [자료실]→ [우리네아이들] 목차에서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한화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을 올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윤선영 · 본회 전문위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이번 호 ‘함께 생각해 봅시다’의 내용은 본회에서 현장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볼 자질에 대해 윤선영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3월 16일

은이는 현재 4세이지만 영아 때부터 다녀서 원수로는 어린이집 다닌 지 꽤 됩니다. 올 해부터는 저희반이구요. 그런데 요즘은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마다 엄마랑 동원하는데, 제가 맞이할 때마다 난리를 칩니다.

저를 밀어내고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가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민망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발버둥 치며 내려오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이 약 2주째입니다. 어마나도 제 눈치를 살피고, 저 역시 제가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 전날 특별한 일도 없었고 오히려 은이는 제가 더 신경 쓰는 아이거든요.

은이는 4세로서는 민질 못 할 만큼 정말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은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개월 수가 빠른 편도 아닌데, 워낙 말도 잘하고, 나서기도 잘 하고 똑똑하고, 놀이에 있어서도 자기가 리드하려고해서 제가 은이 행동에 있어서 제지하는 부분도 때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지내는 거라면서...

그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은이에게 예민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저로서는 관심표현인데.

제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에게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얘기하려고하는데, 그런 관심표현이 과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침에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왜 그럴까?... 납득이 가질 않네요...

오늘도 역시...엄마에게 떨어지지 않고 저에게도 오려하지 않고

현관에서 혼자 앉아있겠다고 해서 앉게 두었어요. 저로서는 많이 생각했죠. 어떤 부분이 온이 마음을 그렇게 만들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현관에 앉아있던 온이를 데리러가자. 온이는 또 마구 울어댁니다. 그 일들이 오늘뿐만이 아니기에. 교실에 들어가서 울게 했습니다. 약 15분정도 교실이 떠나가도록 울더라고요. 교실에 들어가서 온이와 얘기를 했습니다.

"온이아 엄마랑 떨어지는게 슬프니? 아니면...어린이집 오는게 싫으니?" 얘기를 하자.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그럼 온이가 왜 아침마다 울까? 어떤 게 온이 마음을 슬프게 할까? 선생님?... 놀잇감?... 친구들?... 그러자 온이는 "친구들이요."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싫어요. 꽃님반 친구들이 싫어요." 친구들이 왜 싫으냐는 질문에 온이는 같이 안놀아준다고 했어요.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후,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꽃님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에 관해 온이가 아침마다 우는 것에 대해. 친구들은 온이가 모두 좋다고했고. 온이를 한 번씩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온이와 내일 아침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울지 않고 오겠다는 약속들이 몇 번 반복되었었고, 온 이유도 많았었지요. 친구들 이유 댄 적도 물론 있었고, 엄마랑 인사안에서 운적도 있었고, 제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어서 운적도 있었고.

친구들과 오늘처럼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아침 등원 시 우는 아이들, 친구와의 관계, 에 대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일 온이가 약속을 지킬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온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끔 잘 다니던 곳을 거부하고 안가겠다고 떼쓰곤 합니다. 그러면 일단 부모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미워하지 않나, 우리 아이를 못 살게 구는 아이는 없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의 여러 경우를 들어 보면, 공격성이 강하고 친구들의 놀이를 너무 자주 방해하여 진짜 교사가 미워할 수 있는 아이는 오히려 어린이집을 정말 (때먹지도 않고) 잘도 나오고, 전혀 미워할 이유도 없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곤 한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사는 어느 특정한 아이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일반적으로 '나는 교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며 자신을 추스르고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 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유아기에는 선생님이 교실의 중심이지, 친구들이 교실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곧잘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거의 모든 교사는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그 아이에게 다른 과제를 주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도록 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곤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교사가 반 아이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두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사가 교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늘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행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통해 유아들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저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저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하구 말입니다.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어린이집에 안 갈래!" 할 때 곧 잘 우리 어른은 "왜?"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금방 떠오르는 생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나 하고 잘 안 놀아 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즉흥적인 대답을 어른들이 믿고 확대 해석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인은 감추어진 채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지요. 아직 객관적인 판단력이 생기지 않은 유아기 아이들에게 - 물론 성인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기도 합니다. 진정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면 우선 아이에게 질문을 하되 마음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문이란 아이의 행동을 금방 단정 짓지 않고 열어 둔 채 관찰을 많이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놀이 상태,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가족 상황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물론 그 아이가 속한 환경은 교사 자신의 언행도 포함이 되므로 그 아이에 대한 교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성찰해 봅니다.

잘 다니던 아이가 가끔은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은이처럼 과격한 거부반응을 보일 때에는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 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거나 해서 부모 스스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는 매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와 자기를 강하게 동일시하는 아이일수록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가 불안하다고 느껴서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머니 스스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아이에게 집착하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이를 떼어놓지 못하여 불리불안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많은 것을 아이 옆에서 하는 어머니의 경우 역시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바빠 아이에게 소홀해지면서 생기는 불안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생이 생겨 어머니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이나 시댁식구 등의 관계가 원만하고, 언제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낼수록, 아이는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적응하고 생활습관도 건강하게 형성됩니다. 즉, 어머니의 변화가 자녀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의 연령에 비해 어린이집 환경이 소화해 내기에 너무 부담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대집단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집단의 크기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 생활이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아기에 너무 이른 학교에서와 같은 학습을 강요하거나 결과 중심의 능력을 요구하게 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 아이들에게 '세상은 정말 재미 있고, 삶이란 정말 살만한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은 본인이 유치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질문하기를 요즘 아이가 유치원 가기를 거부한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아이)는 아빠와 함께 소 먹이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참고로 농사짓는 가정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유치원을 가야 제대로 세상을 배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 실제 그 유치원 생활이 어떠한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 그래도 그 아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도 소 먹이 주는 것이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소 먹이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유아교육기관에서 인간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꾸준히 나오지 않고 나오다 말다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부모가 보냈을 때 또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용하게도 내가 요만큼 떼쓰면 엄마가 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벌이 부부로 어쩔 수 없이 매일 보내는 부모도 있지만,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보낼 때 주로 아침에 늦게 보냈다 일찍 보냈다 하며 임의적으로 '그 때 그 때 달라요' 식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면 아이도 기분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늘 같은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부모 스스로 어린이집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이는 자연히 어린이집의 생활이 자신의 삶 일부가 됩니다.

덧붙여 부모가 담임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부족함을 탓하게 된다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사도 어떤 부모(어머니)를 마음으로 수용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역시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요.

어린이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는 늘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성인들의 심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삶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고 우리 성인들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 보육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연결하는 과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은 우리 성인들에게도 좋습니다.

동그라미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 한올이는 하늘(?)

작년겨울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 준수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

준수: 선생님 근데 왜 '눈' 이 안와요??

교사: 음~~ 그걸 선생님한테 물으면 어째~~ 하늘이 한테 물어 봐야징~~

준수:(우리 반 한올이한테 달려가더니)

한올아~ 근데 왜 눈이 안와??????

한올:

☺ blue는 알지만 파랑색은 모르는 민재

4세 친구들과 색깔 놀이 하는날..

파란색 색 카드를 들고

교사: 경찰차에 있는 이건 무슨 색일까?

아이들: 파란색~ 파란색~~

민재: 음~~ blue

☺ 선생님은 다 컸는데 왜 자꾸 유치원만 다녀요?

차량운행 중.... 신나게 장난치며 웃고 떠들고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6살 샘이가 나를 뚱뚱 쳐다보고 있다..

그런 시선이 무자극 부담스러웠던 내가 물었다..

교사: 샘이야~ 왜 그래~~ 선생님한테 할 얘기 있는 거야?

샘이: 선생님... 근데요~~ 왜 선생님은 다 컸는데 회사는 안가고 자꾸만 유치원에 다녀요?

교사:***

샘이: 엄마가 아무 말도 안해요?????

교사: 쩍!!

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러더군요

"난~~ 다 컸는데 회사 안가고 어린이집만 다니는 미화가 참 좋아~~" 하고 말이에요...^____^

동그라미놀아방은 1994년부터 부천중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아이들은 늘 자연과 함께 살아요. 매주 가는 등산에 단련된 아이들은 이제 거의 전문산악인 수준입니다.



셋별을 품고 사는 우주 이야기

이순 · 회원

나의 하루일과는 아침6시부터 시작한다.

6시에 일어나 아침준비 하고, 신문 제목만 보고, 샤워 세수하고, 밥 먹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유일한 운동수단인 자전거를 20분정도 타고 출근을 한다. 따로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해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걸거나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다. 어쩌다 비가 오거나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40분 정도를 걸어서 출 퇴근 한다.

걸을 때는 땅을 조금이라도 밟아보려고 흙길을 끌라서 걸어간다. 도시에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있다. 걸어서 출근 할 때는 안타까움을 머금으며 나무와 만나고, 계절마다 피는 꽃을 만나면서, 풀 한포기도 감사함을 느끼며 걸어본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내가 보육하는 시간은 아직 1시간 정도 이른다. 2층으로 가서 컴퓨터로 게시판을 들어간다. 보육교사회, 보육노조, 보육정보센터, 이메일 확인을 하면서 어린이집 일과는 이렇게 시작한다.

시간이 되어 1층으로 내려가면 이진, 여진 쌍둥이가 제일 먼저 와서 나를 반긴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우는 것으로 인사를 하는 12개월 돌이 된 여자아이 쌍둥이다.

우주: "이진, 여진아 만나서 반가워~ 안녕? 그래 우주가 옷 갈아입고 안아줄~께~"

나는 옷을 갈아입고 분유를 탈 감잎차를 준비하고, 풍욕을 하기위해 준비를 한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요를 깔고, 타올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풍욕 테일을 튼다.

우주: "이제 준비 다됐다. 이진 여진아 풍욕하자~ 옷을 벗을까? 오늘 기분은 어때?~"

옷을 벗고, 바지 기저귀 벗고, 팔 다리 주무르며 주까 주까도 하고, 겨드랑이 오금 다리 평소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토닥토닥 마사지하고, 손바닥으로 배를 쓸어주기도 한다. 10여분 정도 하고 있으면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놀이감 놀이를 한다.

풍욕은 아이들이 등원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쌍둥이가 8시쯤 등원을 하면, 다음엔 8시30

분쯤 예린(12개월 여아), 9시에 진표(15개월 남아), 9시30분에 예준(15개월 여아), 10시쯤에 예하(12개월 남아) 온다. 풍욕을 하려면 음식을 먹고 나서 40분 정도 지나고, 풍욕하고 나서도 40분정도 지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함으로 등원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오전 전체 간식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일과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쌍둥이가 옷을 입으면 예린이가 풍욕을 하고 끝날 무렵 진표가 온다. 진표가 풍욕을 하고 옷을 입고 있으면 예준이가 와서 풍욕을 한다.

이렇게 진행된 풍욕을 예하까지 끝내면 10시30분~11시가 된다. 그러면 오전 간식으로 과일즙과 분유를 먹는다.

어느새 진표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우두~우두~를 외친다. 진표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나 무엇인가 원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래~ 진표야! 기저귀도 보고, 예준이랑 친구들과 유모차 타고 나가자."

쌍둥이용 유모차인데 4명이 탈 수 있어서 진표 예준 쌍둥이 이렇게 4명에서 공은 나들이를 한다. 나머지 아가는 사슴선생님과 오전 낮잠을 자기도 하고 실내놀이를 한다.

공원을 지나 학교 운동장으로 가 맨발로 흙을 밟으며 한 바퀴 돌면서 놀다가 유모차 타고 공원길을 따라 들어오면서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새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곤 한다.

집에 들어와 점심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지만 흘리는게 반이 넘고, 그래도 스스로 먹겠다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아가들...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쑥불로(2시간 정도 다린 약 쑥불로 찜찜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샤워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저귀도 갈고 약 먹고 낮잠에 들어간다. 다른 아가들은 뉘어서 토닥토닥하면 꿈나라로 가는데 예하는 아직도 업어야 잔다. 등에 업고 포대기를 띠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새근새근 잠들어 있다.

오전 잠을 잔 아기들은 놀이감 놀이를 하고 낮잠을 잔 아가들은 2-3시간 정도 잠을 잔다. 중간에 한 두번씩 깨더라도 교사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토닥토닥 재워주면 편안하게 푹~ 잠을 잔다. 어쩔 아가들이 자는 모습은 누구나 천사 같다.

잠에서 일어나 기저귀 갈고, 각자 취향에 따른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놀다가 음악을 들려주면 진표는 허리를 흔들어 엉덩이 춤을 추고 예하는 박수를 치며 눈빛이 빛난다. 소리에 예민한 쌍둥이는 눈이 번쩍,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가 썩웃는다. 그렇지만 아직 예린

이는 스스로 놀이보다 교사의 품안에 더 오래 있기를 원한다. 놀다가도 교사가 움직이면 울고, 불안해한다. 예린이가 울면 예하는 옆에 와서 예린과 경쟁을 한다. 예린 이는 더욱 겁나게 온다. 예린이를 고옥 힘껏 안아주면 예하는 슬그머니 물러난다. 예하는 우주가 안보이면 잘 노는데 우주가 있으면 안아 달란다. 아무래도 예린이는 1:1 양육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불안해한다. 이런 날에는 놀이 감에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한바탕 어수선한 듯 신나게 놀다보면, 어느새 오후 간식시간 국수가 나왔다. 모두 앉아서 국수를 푹푹 빨아먹기도 하고, 길게 늘려 보기도 하고, 흔들려 보기도 하면서 맛있게 먹는다. 더욱 맛있게 먹는 아기는 예하 감자도 잘 베물어 먹고, 가리는 것 없이 무엇이든 잘 먹는다. 까공 방에서 (3개월~20개월까지 반)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아가는 예준이 3/2공기 이상을 먹는다. 진표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만큼 먹는다.

간식을 먹고 나면 오후 낮잠을 잘 아가들이 잠투정을 한다. 청얼청얼~그때 우리 아가들 줄리지? 자자 아~예하부터 업어서 재우고 예린이 분유타서 먹고 있으면 스프르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잠을 잔다.

오후 6시가 넘으면 하나 둘 귀가하기 시작한다. 부모님께 하루 지낸 이야기 들려주면서 귀가를 돕는다.

보육은 청소부터 시작하여 풍욕, 오전간식, 바깥놀이, 점심, 양치, 샤워, 낮잠, 놀이감 놀이, 곤지곤지 짹짹놀이, 오후 간식, 3시간 간격으로 분유 두유 타서 먹이고, 매시간 마다 기저귀 갈기, 배변 치우기, 놀이감 정리, 건강일지, 보육일지 기록 등 이렇게 하루일과가 끝난다. 휴~ 오늘도 간장과 웃음이 교차 하면서 무사히 하루를 마치는구나~

이렇게 저녁6시까지 보육을 하고 운이 좋으면 퇴근하고 회의가 있거나 정리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컴퓨터에 앉아야 한다. 또 모임이 있거나 만나야 하는 약속이 있으면 일을 본다. 대부분 보육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바쁘지만 바빠서 행복하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면 더더욱 좋다. 보육교사들에게 건강이여 영원하길~

좌충우돌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7탄 박예은 돌잔치 대작전

김수연 · 회원

예은이의 돌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것 저것 준비는 해야겠는데 예은이가 깨있는 동안은 할 수가 없으니 예은이 재워놓고 밤마다 육아사이트 돌아다니며 돌잔치 자료를 모았다. 한 삼사년전만해도 그냥 뽀빠집에서 아이 돌상이나 차려주고 오신 분께 답례품 정도만 준비하면 되었던 것이 요즘은 가족이벤트가 되고 있다.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여야 했다. 우선 육아사이트에 올려놓은 돌잔치후기 글을 읽으며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정했다.

우선 취할 것

1. 돌잡이 이벤트 - 축하하러 와주신 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응모권을 나눠준 후 예은이가 돌잡이때 어떤 물건을 잡을지 예상해서 응모함에 넣은 뒤 돌잡이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준다. 돌잡이 용품은 실 연필 쌀 돈 마우스 골프공 마이크로 결정
2. 답례품 - 요즘은 떡말고도 키친타올이나 시계, 머그잔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린 본 뜻에 맞게 백설기로 준비했다 한말에 40개 정도나온다고 하니 두말 예약했다.
3. 돌상, 풍선장식 - 요즘엔 빠질 수 없는 필수 항목이 되었다 뽀빠집에서 예약
4. 볼거리 - 예은이의 탄생에서부터 돌에 이르기 까지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진보드와 성장앨범 그리고 탄생일보를 준비(포토샵하는 예은이 고모가 도와주었다)
5. 덕담보드 - 오신 손님들과 축석사진을 찍고 거기에다 덕담글을 써주십사 부탁드림
6. 예은이 드레스 - 예은 드레스는 꼭 입혀주고 싶다. 대여점에서 빌리기로 함
7. 후식 - 약봉지에 별사탕 넣어 준비

버릴 것

1. 초창장 - 예은이 고모가 디자인해서 프린트로 뽑았다.
2. 가족의상 - 요즘 트렌드는 대여해서 푼악 차려입지만 우리 부부는 결혼때 한 한복을 입기로 하고 나만 따로 배자(한복 저고리 위에 덧입는 조끼)만 빌려서 입었다 예은이 한복도 한달전에 돌잔치한 다른 아가의 한복을 빌렸다.
3. 비디오 스냅사진 -전문가 대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함

Birthday Newspaper

박예은 탄생일보

출생일: 2008년 4월 20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생시간: 오전 10시 15분 출생체중: 3.2kg

(축) 박예은 탄생 축하

출생 축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작은 생명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은이는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우리가족 소식

안녕하세요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예은이가 태어나서 가족은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은이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우리아이 이름 짓기까지

이름은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은이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대충 이렇게 정리하니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건 우리 예은이의 컨디션이다. 한복입고 있을때 주주 달라고 떼쓰면 어쩌나 걱정이다. 뷔페예약을 70명으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더 올 것 같아 80명으로 늘었다. 예상인원 잡기가 수월치 않다. 더 올 것도 같고 들 올 것도 같고

팔래미 돌잔치 준비하기가 쉽진 않다. 그래도 잘 해주고 싶은게 부모심정이다.

예은이 탄생일보입니다.

육아사이트에서 제공한 기본 틀에 몇 가지 글을 제가 써 넣어 만들었습니다.

Birthday Newspaper

우리가족 소식

출생일: 2008년 4월 20일 출생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생시간: 오전 10시 15분 출생체중: 3.2kg

우리의 아가에게 보내는 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작은 생명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은이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우리가족 소식

안녕하세요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예은이가 태어나서 가족은 더욱더 행복해졌습니다. 예은이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우리아이 이름 짓기까지

이름은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은이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박예은 아빠: 김민준

가족: 김민준, 박예은, 김민준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은 소망으로 피어나... 세쌍둥이 어린이집

류지민 · 우리네기획팀원

1991년 11월, 인천에 한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다. 이름은 세쌍둥이 어린이집. 참 특이한 이름에 사람들은 여기 선생님이 세쌍둥이를 낳아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름 속엔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 담겨져 있었다.

1991년 3월의 파스한 봄날, 인천시 동춘동 산기슭에 있는 네 평가량 되는 슬레이트로 된 허름한 월세 집에서 부모님들이 집을 비운 사이 불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다섯 살 세쌍둥이(태식, 재식, 강식)가 숨졌고, 그 유골은 월미도 앞바다에 뿌려졌다. 아버지 심씨가 용접 일을 하여 번 30~40만원의 수입은 월세와 생활비에도 모자라서 세쌍둥이에게 먹이던 우유마저 끊어야 하는 절정이었고, 이에 어머니 최씨는 우유값이라도 벌어보려 했지만, 근처에



세쌍둥이-태식,재식,강식



아이들을 맡길 만한 탁아소가 없다는 현실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세쌍둥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위해 인천지역 탁아위원회, 공부방 연합회, 전교조, 여성노동자회 등 인천의 각 단체 사람들과 독지가 김내과 김정아 원장님 등이 모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세쌍둥이 어린이집은 부평에 위치해있고, 0~48개월까지의 영아전담 시설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오전 7:30~오후 7:30분까지 보육하고 있으며 퇴근이 늦는 부모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야간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감면대상이 안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에는 원내에서 30%~50%까지 보육료 감면혜택을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100%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관계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처음에 빈민탁아로 시작해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공동육아 형태의 어린이집이었다면 (이때는 부모회가 어린이집 재정도 함께 운영했었다.) 지금은 교사중심의 비영리 어린이집으로 운영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왔다.

그러다 보니 부모회가 존재해도 예전에 비해 그 관계가 많이 소홀해졌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와 신입교사교육을 통해 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설립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다소 무관심해 진다며 아쉬워한다. 해마다 세쌍둥이를 위한 추모제는 인천의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꽃피웠으나 몇 해 전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원내 행사로 축소가 되었다.

어린이집 변화에 따른 아쉬움도 많지만, 지금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맞는 교육과 보육에 최선을 다하는 세쌍둥이 어린이집. 1~2년 안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좋은 공간과 지원 체계를 획득하여 보다 좋은 어린이집을 이루는 게 소망이라는 세쌍둥이 어린이집.

피우지 못한 어린 태식, 재식, 강식의 작은 소망들이 이 어린이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고영미회원 여성부장관표창

6월12일 열린 보육인 대회에서 우리회가 추천한 고영미 회원이 보육유공자상을 여성부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았습니다.

☞ 3차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진행

지난 7월2일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임시운영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제13회 한일보육교류연수단 선발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권교육워크숍 실시

지난 7월2일 도봉구보육시설연합회 주최의 교사교육에서 인권교육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로는 서정은, 이경녀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 국공립보육시설확충관련 단체장 간담회 참석

2005년7월25일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이 주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관련 단체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공립시설 신축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국공립시설 신축유도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회에서는 서은희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10년 활동 정리팀 회의진행

지난 7월28일 8월12일 8월 23일 8월30일 제 5, 6, 7, 8차 정리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995년 이후 10년 활동에 대한 정리내용은 9월중 완료되어 이후 검토과정을 갖고 보완될 예정입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참석

지난 2005년 7월22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서은희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에서는 보육발전5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은 보육시설의 안정성에 있다고 보고, 향후 아동별지원으로의 지원방식 전면전환이 가져올 보육시설의 시장화 경향에 대한 우려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력교사들의 계속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성권 보장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책정, 국공립시설 재위탁시 교사 고용승계문제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의회 활성화 세미나 참석

지난 8월11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한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의회 활성화 세미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여성단체연합사무국장연석회의 수련회

지난 8월19-20일 양일간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 수련회가 천리포 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4차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회의진행

지난 8월 27일 한국보육교사회 전망팀 4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역마다 회원모임을 통해 전망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일시장소는 정해 지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제13회 한일보육교류연수단 선정

지난 8월27일 한국보육교사회 임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제13회 한일보육교류연수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단에 선정된 회원은 박부자(경기), 이정녀(서울), 최종문(서울), 김계임(인천) 회원님입니다. 한일보육교류연수단은 2005년 10월17일부터 2주간 오오사카 보육시설에서 보육연수를 받게 됩니다.

❖ 회원모임 "따순 수다로 마음자리 돌아보기" 열려

지난 8월27일 한국보육교사회가 임주하고 있는 여성평화회의집 잔디마당에서 회원모임 "따순 수다로 마음자리 돌아보기"가 있었습니다. 각자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즐거운 회원모임을 가졌습니다.

❖ 부산지부 여름연수 실시

9월4일 "상처를 보듬고 자존감을 높이는 어린이집 언어생활"이라는 주제로 부산지부 여름연수가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강의는 <꽃피는 학교>교장, <배움의 숲> 대표인 김희동선생님의 "말에 깃든 열과 결" 과 마주 이야기 교육연구소 소장인 박문희선생님의 "언어생활의 실재 -들어주자 들어주자" 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읽은 세상

이선미 · 회원

보육교사를 하다가 일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나선지 반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그것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아낙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조금씩 몸에 익어 가고 있다.

물론 땅을 알고 작물을 알고 풀을 아는 것은 아직도 먼 일이며 '살림'을 배워나가는 것도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때이다.

도시에서 시계의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나다가, 해가 뜰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지금은 자연스런 과정이 되었다.

하늘을 보며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무척 덥겠구나 하는 등 스스로 나를 둘러싼 자연의 세상을 만나고 거기에 맞춰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한다.

밭에서 일을 할 때는 칠갑산의 노래 한구절처럼 콩밭 메는 아낙이 되어 옷이 흠뻑 젖도록 일을 하고, 집안에서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어설픈 살림을 하느라 말바리처럼 다니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된장국을 끓이는데 시장에서 모든 재료를 사와 냉장고 넣고 여기서 모든 재료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텃밭에서 호박, 부추 등을 가꾸고, 평에서 이미 캔 양파와 마늘을 가지고 오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 와서 요리를 한다.

언뜻 귀찮아 보일수도 있지만 돈으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으로 일년의 먹거리를 장만하는 손길에서 음식이 나온다.

먹을거리를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은 곱절은 들고, 일일이 준비하고 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소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생활에서 생산이 추가 되고 이를 함께 나누는 것까지 나의 삶이 확장이 된 것이다.

도시가 얼마나 소비를 부추키며, 사람들은 여기에 매달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을 최대의 과제와 희망으로 여기게 만들지만, 시골에서는 어떻게 스스로 앞가림을 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깨치게 한다.

필자도 물론 도시의 삶의 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사는 곳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산과 들과 마을이 나의 공간을 여유롭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단하지만 땅을 밟고 농촌을 지키며 사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까지 든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시골 생활을 하며 꿈꾸거나 그리워하는 모습일 게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개개의 삶의 방식으로만 풀 수 없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

필자는 여기서 소위 농민대학이라는 곳에서 친환경농업을 공부하고 있다. 가끔은 머리로 식힐 겸 그리고 농촌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을 담당한다는 공무원이 직접 내려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의 골자는 농사에서 돈 벌려면 가족농은 안되고 기업농으로 해야하며 유기농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상위30%의 국민을 대상으로 비싸게 팔아야 살아 남을 수 있으며 나머지 국민은 어쩌피 수입산 먹으니 그냥 수입산 먹으면 된단다.

그리고 농촌의 마을을 계획적으로 생태체험 공간, 주거 공간 등 공간을 분할하여 단지를 구성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얘기다.

마치 서울 근교의 신도시처럼 그리고 공장들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며 아찔한 마음이 서늘하게 지나갔다. 어디든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나. 그리고 농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부의 무식함과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들었다.

돌아오는 내내 혀를 끝끝 차며 왔지만 마음은 돌덩어리를 안은 듯 무거웠다. 개인이 선택하는 삶은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같이 헤쳐가야 할 공동체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전 받은 전화가 한 통화 생각이 났다. 군에서 이주여성농민들을 위한 한글강좌와 문화행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는 내가 아직 이주(?)를 못했다고 넘겼지만 내내 머리 속을 맴돈다.

여름날 일하며 듣는 매미소리가 나무에서만 나는 것이 아닌갑다. 여기저기서 들리니...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부모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김병영 · 미래어린이집 학부모

지난 해 6월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간식과 원장의 급간식비 횡령 등에 대한 여섯 명의 보육교사들의 양심선언이 공중과 방송을 뒤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 글은 당 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했던 학부모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해 주신 용기 있는 여섯 명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양심 선언한 교사들의 고용승계
- 전 시설장의 실형 10월
- 현재 구청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

위의 3가지는 지난 2004년 6월 14일 구로구 미래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학부모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뤄 놓은 결과이다.

푸드뱅크 음식과 굿판의 떡을 아이들의 간식으로 먹이고, 썩은 바나나와 썩은 오렌지 등 저질의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장의 비리를 여섯 분의 교사들이 양심선언으로 모든 방송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일을 터뜨리는 것 만큼 수습하는 과정도 힘들었다.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은 구청에서 보았을 때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고, 사건을 파헤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을 파헤쳐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용

히 덮으려 하는 주위의 시선들을 느꼈다. 학부형들은 양심선언을 하신 교사들을 보호하고, 전시설장을 구속 시키고, 어린이집 안정을 위해서 구청과의 협상 등의 당면된 과제를 한꺼번에 주위의 도움 없이 풀어가야 했다.

다행히도 미래어린이집은 구립이라 교사들의 고용승계와 함께 안정을 찾았고, 학부형들은 시설장의 처벌에 관해서만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시설장의 처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험난하고 길었다. ‘급식비리횡령’이란 죄목 아래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인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가 피해자로 법리적으로 해석이 되고 말았다. 학부형들은 6번의 공판도 중에 법정에서 ‘법정모독’에 가까운 항의를 했고, 아이들이 피해자란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법정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아이들을 인식하였고, ‘죄질’이 나쁜 시설장을 실행 10월의 판결로 작으나마 학부형의 한을 풀어 주었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어머니에게도 같은 죄로 ‘구속’에 이르게까지 만들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부형들의 목표는 한가지였다. 죄인을 죄인으로써 댓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판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현재 미래어린이집은 관할구청의 책임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민사소송의 목적 또한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판례를 만들게 되었다.

2005년 6월 10일... 미래사건이 터진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강북구의 k어린이집에서 “꿀꿀이 죽” 사건이 터졌다. 아직 미래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구청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을 때였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강북구에서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에 의해서 또다시 원장의 비리가 밝혀졌다. 순간! ‘우리가 간 길을 저 사람들이 가야 한다니...’ 온통 지난 1년들이 스쳐지나갔다. 너무 힘들었던 일이었기에 강북구의 학부형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미리 김부터 먹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또한 강북구의 경우는 민

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힘들거란 생각도 앞선다. 우리의 사건과 많이 비슷한 강북구 어린이집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일들은 우리가 겪었던 지난 일들을 말해주면서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미래어린이집이 이뤄 놓은 ‘판례’가 강북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다.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할 구청의 답변은 똑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개정영유아보육법에서 “운영위원회”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보고 있다. 그 인력 란을 학부형이 해주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래조차도 운영위원회 없이 “부모회”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새로 온 시설장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부모회에 대하여 ‘동네 친목회’쯤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학부형의 의견이 참고가 아니라 결정이 되어지는 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모임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만큼이나 절실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형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누군가의 양심선언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미래어린이집은 지금으로선 가장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부모회의 임원들은 시시때때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도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최후의 결정권자는 집니다. 학부형들의 의견은 참고만 할뿐 착각하지 마세요” 위의 말은 새로운 시설장이 오고 처음 있는 부모교육시간의 내용 중의 일부이다.

벌써 1년이 되어가지만, 시설장의 마인드는 별다르게 바뀐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 학부모 참여 수위를 높여지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하반기를 맞이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약속한 운영위원회의 독려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민원을 넣을 생각이다.

구로구의 관할 구청에는 운영위원회를 언제 설치할 예정인지 다시 한번 민원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모회’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

저자의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이 글을 시작한다. 첫째는 양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정서적 안정과 관심에 관한 유아들의 욕구에 반응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유능하게 행동하는 능력이 발달하도록 지지해주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힘을 주는 과정은 영아기에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매일 겪는 경험은 경험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 자체로서의 그들의 경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 저자는 공간과 시간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배가 어떻게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근원적으로 행해지고 널리 퍼져있는지, 일상생활에서의 엄격한 파위가 행사될 때 아이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또한 아이들의 놀이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설명한다.

4장에서 저자는 힘이 어떻게 아이들의 정서적 경험을 만드는지, 양육자와 아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 보면서, 탁아상황에서 양육자의 소원한 정서적 노동의 문제를 논의한다.

5장에서 다루어지는 Emotionally Responsive, Empowering Child Care에서는 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내에서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아기에게 권한을 허용하는 보육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 소식과 소식

☞ 군·구청장이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관리

그동안 시설장이 관리하던 보육시설종사자의 경력관리가 8월1일부터 시·군·구청장이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7월 30일까지 개인별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원조치를 통하여 보육 시설종사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앞으로 신규임면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이 임면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각 시·군·구청장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종사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상에 미입력된 종사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별도의 대장을 당해 입증서류 등과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문의: 보육기획과 Tel: 02-3703-2712 E-mail: pnk503@mogef.go.kr

출처: <http://mogef.news.go.kr>

☞ 보육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 수상자 발표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 보육 슬로건 및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당선작은 "당신의 아이, 대한민국이 함께 키웁니다"

캐릭터 부문 최우수 당선작은



출처: <http://www.mogef.go.kr>

☞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여 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편의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나 익명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보는 접수 후 즉일 조치 원칙, 상세조사 필요시 1주일 내 처리를 운영원칙으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회계 관리: 보육료 초과 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종사자관리: 인건비 부당지급, 부당해고

아동 보육: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기타: 시설운영 시간, 시간연장보육 미 실시 등

※ 신고센터 설치 장소: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

전화: 3703-2755-6 (담당 이진원) 팩스: 3703-2610

출처: 7월27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대전서 임시총회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전어린이)는 20일 오후 3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어린이와 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보련)의 통합경과보고, 정관발표, 2005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어린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23일 일부 대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절차없이 조직의 해산을 선언하고 한보련과 통합한데 대해 지난 6월 22일 법원에서 해산 무효판결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신문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5년7월2일부터 8월23일까지 입금분입니다.)

<후원금>

강영신 50,000 이순 50,000 서은희 200,000 이경아 10,000

상근자휴가비지정후원금 이은애 100,000

<좋은엄마 구독후원>

근로복지공단부천어린이집 5,000

<해피로그 후원금>

bh*****(정기)휴대폰 5000

*해피로그를 통한 휴대폰, 신용카드 후원 가능

<http://happylog.naver.com/childcare.do>

<자료회비>

유기자님, 송미연님

<후원회비>

오윤정 10,000	조선헌 10,000	백선헌 10,000	오영숙 10,000
김정운 10,000	김경인 10,000	한만우 10,000	김동현 10,000
이지수 10,000	신현미 10,000	박선하 10,000	장혜자 10,000
주로미 10,000	송순우 10,000	김영옥 10,000	최영신 10,000
이미화 10,000	김영화 10,000	양은희 10,000	정승희 20,000
한상원 10,000	이준구 10,000	정영학 10,000	김심환 10,000
세쌍둥이100,000	박영미 12,000	이현경 20,000	남명자 20,000
이희경 20,000	김수애 20,000	김민정 20,000	오경숙 20,000

유희정 20,000	이옥 20,000	안명희 20,000	정승희 20,000
김세희 3,000	김종원 30,000	오선영 30,000	권혜진 30,000
김은주 5,000	신주영 20,000	김진명 5,000	이미정 5,000
신아령 5,000	김숙희 5,000	이정남 5,000	최순옥 50,000
박영수 50,000	조인숙 50,000	김현빈 20,000	



편·집·후·기



아슬아슬 재미있는 나무다리 - 동
그림 아이들의 성주산나들이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더위에 지쳐 혁혁거리
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같은 날씨네요. 우
리네 9월호로 결실의 계절 가을을 새롭게 시작해
보시길.

이번호 보육활동 아동교육코너는 필자의 사정으
로 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호에서 더 좋은 글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네기획팀으로 수고해주신 류지민 선생님이
출산을 앞두고 제서서 당분간 활동을 쉬십니다.
덕분에 재미난 만남 많이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아기 낳으세요~

아... 후기글! 한 해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쉽고 미
안함만 가득합니다.

우리네 기획팀 하면서 정말 맘을 걸 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네요~/류



회비 20,000원 / 정회원 20,000원 / 준회원 10,000원
 명예회비 50,000원 / 후원회비 10,000원 / 후원회비 5,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신년회비 5,000원 / 신년회비 2,000원 / 신년회비 1,000원



한국특수교육교사협회 창립총회 모습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면.....

- 매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구입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회원이 되면.....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면.....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505-362-8568)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childcare.do>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505-362-8568